

전남 동부권



지난 30~1일 보성군 문덕면에서 열린 '참국화 시인학교'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이 시를 창작하고 있다. (참국화 시인학교 제공)

문인들의 '재능기부' '문학새싹' 무럭무럭

보성 시인학교 개설...전국 초중고생 40여명 참여

"발에 차이고 차여서/ 다시 쪼개고 쪼여서/ 비명없이 밝히기만 하는구나// 네가 안쓰러워/ 모든 아픔을 품어주는 / 만물의 어머니께도 / 멀리 수제비 띄워보지만//한번의 풍당소리에 /하늘을 한번 우러르고는 / 너는/ 그렇게 그렇게 사라졌다."

문덕면 종합생활관에서 교육기부 문예교인 '학교 밖의 더 큰 세상 참국화 시인학교'를 개설했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이다. 참국화 시인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2012학년도 여름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한국문인협회 회원들이 중심이 돼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선미·서정운·조용환·김영래·김정현 시인 등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시 낭송·시 퍼포먼스(역할 정하기)를 비롯해 시 창작이론·논술 이론 등을 익혔다. 또 학생들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이재현 청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주안팀 김관중 단장으로 부터 환경교육을 받고, 주안호 주변 환경보전 봉사활동을 했다.

한여름밤의 음악회

3~4일 화엄사계곡

여름밤 무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줄 수 있는 '제1회 한여름밤의 음악회'가 3일과 4일 저녁 8시부터 화엄사계곡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구례군 마산면 청년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피서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침체돼 있는 화엄사 시설지구 상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8월 참살이 수산물 전복·백합 선정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8월의 제일 참살이 수산물로 전복과 백합을 선정했다. 전복은 '바다의 옹달'로 불리며 8월에 살이 많이 올라 가장 맛있다. 조개류중 수분 함량이 많고 지방 함량이 적은 편으로 비타민·칼슘·미네랄 등이 풍부해 피부미용, 자양강장, 산후조리, 허약체질 등에 효능이 뛰어나다.

읍시장 리모델링·청소년 수련원 건립 등

보성군 추경안 3527억 확정

보성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총 3527억원으로 확정됐다. 1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3249억원 대비 8.56%가 늘었다. 이중 일반회계가 3319억 원, 특별회계가 208억 원이다.

현안사업 군비부담금 및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 등을 위해 편성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보성을 5일시장 문화 관광형 시장 조성사업 10억 원 ▲보성군 보훈회관 건립사업 12억 원 ▲청소년 수련원 건립 15억 원 ▲주거환경정비사업 10억 원 ▲보성마트~택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특랑만권 난대특화림 조성 17억원,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 5억원 을 비롯해 생태하천 조성, 지역농업 특화기술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도 반영돼 당초예산 대비 87억원이 증액됐다. 자체수입은 당초 예산대비 77억 9300만 원이 증액된 409억 13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2.3%로 나타났다.

곡성군 필리핀 어학연수

관내 중학생 18명 출국

곡성군 중학생 필리핀 어학연수팀이 1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관내 중학생 18명은 오는 17일까지 2주간 필리핀 울더내타 시립 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하게 된다. 군은 지난 3월 필리핀 울더내타 시립 대학교와 어학연수 관련 협약을 맺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지역학생들의 외국어 향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용백기자 kyb@

동부권 2000여 사업장 3년간

미환급 교육훈련비 22억 달해

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지사장 문기표)는 "지난 2009년도부터 지난 3년간 전남 동부(광양·여수·순천·보성·고흥) 지역내 2000여 사업장이 신청하지 않은 교육훈련 환급금액이 22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업장의 사업주가 직원 또는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전문교육 훈련기관을 통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교육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 동부권내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환급제도에 대해 실업급여와 같은 일부 혜택을

알고 있으며, 근로자를 교육시키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사업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사업주는 '사업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를 통해 연간 납부한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40%) 범위까지 교육훈련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전 북

정읍 특화사업 육성 '팔 걷었다'

첨단방사선, 블랙베리 신품종 재배기술 컨설팅 등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 방사선연구소(소장 김영진)가 정읍시와 함께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첨단방사선연구소는 지난 31일 방사선 육종 블랙베리 신품종 '메이플' 묘목을 올해 처음 보급받아 농가를 대상으로 블랙베리 재배기술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 원주군 고산면에 위치한 ㈜태준 블랙베리 육종 재배장과 정읍시 관내 블랙베리 재배 농가 견학, 재배 농가 실증 교육,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실무자 세미나 순으로 진행됐다. '가시 없는 검은 복분자'로 불리는 블랙베리는 항산화 기능이 뛰어나 국내 생산 및 소비 확대가 유망한 과실이다.



농익는 청포도. 연일 짙푸른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1일 정읍시 신태인읍 천단마을 주민이 탐스럽게 익은 청포도를 수확하고 있다. /연필뉴스

조선왕조실록 전주사고본 複本사업 완료

시행 4년만에...태조~명종실록 614책 마무리

조선왕조실록 전주사고본 복본(複本) 사업이 4년만에 마무리됐다. 전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추진한 조선왕조실록 전주사고본 복본화 사업(태조~명종)을 4년여의 작업 끝에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역력한 기준의 제작지침을 제시하는 등 한국의 기록문화와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도 공을 들였다. 현재 지난해 7월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1, 2차 사업으로 완료된 430책은 경기전 전주사고와 어진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다. 이번에 완료된 184책은 이번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중 청소년 한지미술 국제 교류전

9일까지 전주박물관

한·중 청소년 한지미술 국제 교류전이 31일부터 9일까지 10일간 전주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전북도교육청이 후원하고 전북미술교육연구회(회장 이근호)가 주관하는 이번 교류전은 전북 중등미술교사 40여명이 한지를 이용한 작품 200여점과 중국 서안학생들이 한지에 그린 작품 100여점이 전시된다.

류전은 한지의 다양한 표현을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동질성과 친밀감을 확산시키기 위해 열리고 있다. 전통미술 교육연구회 관계자는 "이번 교류전은 학교 미술수업시간에 순수한 마음으로 표현한 일반 학생들의 작품이라는 점과 그려진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미의식을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단 신

중·고생 350명 참가 '전주시장배 농구대회'

'제10회 전주시장배 농구대회'가 2~3일 전북대 체육관에서 열린다. 전주시·전주시 통합체육회 주최, 전주시 통합농구연합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도내 중·고등학교 동아리 선수 350여명이 참가해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폭염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들이 대회장을 찾아 어린 선수들에게 진심어린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산 옥도면 도서 주민 애로사항 수렴 소통행정

군산시 옥도면(면장 이진석)은 관내 16개 유인도서를 순회하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관광객들과 의견을 나누는 등 현장 소통행정에 나섰다. 이번 순회는 새로 부임한 이진석 면장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1일 비안도를 시작으로 오는 13일

까지 선유도와 아청도 등 옥도면 관내 유인도서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진석 면장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분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시 8월 중 '지평선 아카데미' 운영

김제시는 '나는 바꾸고, 우리의 것은 살린다'라는 테마로 8월 지평선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2일에는 송현덕 한국심리 평생교육원장을 초청, '의식과 행동을 바꾸는 자율훈련법'이란 주제로 진행하며, 9일은 김명자 하하드립 대표를 초청, '얼굴표면 인생

핀다' 주제로 실시한다. 또한 16일은 김주승 동국사학 편집위원을 초청, '한·중 양국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한다. 23일에는 기획강좌 '명장을 만나다'에 국악인 오정해씨를 초청할 예정이다.

고창군 2014년까지 문화·역사 사진DB 구축

고창군은 오는 2014년까지 문화·역사 사진자료 DB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군민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 및 촬영인·사진작가 등이 제공한 자료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계획이며, 제공된 사진은 스

캔 후 반환할 계획이다. 군은 DB작업이 완료되면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진 자료를 검색해 필요한 자료를 관리자에게 요청하면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